

## 학교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도 방안

김 항 원\*

### 目 次

- I. 머리말
- II.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 및 내용
- III. 학교 환경의 개선
- IV.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 V. 맺는 말

### I. 머리말

미래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며, 지식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 확산 활용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후진국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필수적이 된다.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되지 않고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막히게 되고 개인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화는 제도적인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식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그 제도는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민주시민교육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국민들의 시민성은 부끄러운 수준에 있는 것 같다. 기초적인 질서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민주화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IMF 체제를 자초하여 국민소득을 거의 10년 전으로 후퇴시킨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가 없고 우리 나라의 발전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며, 미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민들의 창의성도 개발할

\* 사회교육과 교수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이나 사회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가정이나 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보다는 지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주로 가르쳐온 것이다. 그 결과 지식과 관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생활로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지는 못한 것이다.

최근에 와서 학교의 외적 환경도 많이 민주화 되어가고 있고 정치의 민주화도 많이 진척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시켜야 할 때이다. 학교에서는 학교환경이 민주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교과에서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환경의 개선과 학교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 환경을 교실 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Ⅱ.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표 및 내용

###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정신 또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추구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즉, '시민으로서의 신념, 가치관, 태도, 능력 등 제반 민주적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데 초점이 주어진다.'<sup>1)</sup> 좁은 의미로 시민성 교육이란 한 사회 안에서 훌륭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훈련으로서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시민성 교육은 단순히 정치적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시민으로서의 규범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민의 자질을

1) 광병선 외,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4, p.21.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sup>2)</sup>

다시 말하면 민주시민교육은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시민성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바람직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품성과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① 공정한 욕구의 달성과 확장 ②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신념 ③ 민주적 인간 관계 ④ 사회 문제의 인식과 해결 능력 ⑤ 민주적 생활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기능·태도를 갖고 이를 이용, 실현하는 능력이라고 한다.<sup>3)</sup>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 기능과 능력,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성을 함양하거나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가정, 동료집단, 학교, 직장, 매스컴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교육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 2.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위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이나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민주시민은 개인 문제나 사회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과 기능 및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이란 기본 질서와 법질서 등 기본 생활 규범을 잘 지키는 인간, 공동선을 추구하여 타인과 공평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인간,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자기의 주장을 떳떳이 펼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정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이야기한다.<sup>4)</sup>

시민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좁은 의미로 시민성은 단지 한 국가 내에서 법적인 지위와 투표, 정부의 조직, 공직에 취임, 법적인 권리와 책임과 같은 정치적 기능들에 밀접히 관계된 활동들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로 시민성은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발휘되는 바람직한 개인적 자질들과 거의 동등한 의미이다.<sup>5)</sup>

2) 전숙자, "생활교육과 시민교육", 『社會와 教育』 제23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6, p.45.

4) 광병선, 앞의 책, p.35.

5) Benjamin C. Wills, et al., *Educating for American Citizenship*,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A Depart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1954, p.364.

민주시민교육은 국민들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고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선량한 시민으로 교육시키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가져야 할 국민의식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인식시켜 국가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간의 평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한 국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6)</sup>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정리하면,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대한 신념과 지식을 가지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회 질서와 법을 지키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 3.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지식, 지적 기능, 가치·태도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먼저 선진 민주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시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와 내용을 살펴본 후에 우리 나라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기르기 위해 1995년 전미사회과교육협의회(NCSS)에서는 사회과교육의 중요한 10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10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sup>7)</sup> ① 문화 ② 시간, 지속성 그리고 변화 ③ 인간, 장소 그리고 환경 ④ 개인 발전과 정체성 ⑤ 개인, 집단 그리고 제도 ⑥ 권력, 권위 그리고 통치 ⑦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⑧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 ⑨ 지구촌 관계 ⑩ 시민의 이상과 실천 등이다.

미국의 많은 정치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제시한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능력으로는 의사결정과 판단을 위해서 인쇄되거나 인쇄되지 않은 자료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사용하기, 정치 상황과 활동에 개입을 평가하기, 의사결정, 판단하기, 다른 시민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

6)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평민사), 1992, p.180. 재인용.

7) 전숙자, 앞의 책, pp.51-52. 재인용.

8) Allen Smith, "Channeling in a Good Citizenship", *The Social Studies*, Jan/Feb., 1985, p.28.

른 사람들과 협조하기 그리고 자기 이익과 가치들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등이다.<sup>9)</sup>

버츠(Butts)는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속의 통일성'이라는 표어를 반영하여 통일성과 관련된 시민정신 내지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로는 정의, 평등, 권위, 참여, 진리, 애국이라는 6개의 가치를 들고 있다. 다양성 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관련된 시민정신으로는 자유, 다양성, 개인적 비밀 보장, 합법적 절차, 사유재산과 인권 등 6개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sup>9)</sup>

영국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위원회(NCC)에서는 1990년에 시민교육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발행하였다. 이 지침은 시민교육의 필수 학습 주제로 ① 공동체 ② 다원화 사회 ③ 시민의 의미 ④ 가족 ⑤ 민주주의 ⑥ 시민과 법 ⑦ 일, 취업 및 여가 선용 ⑧ 공공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식 위원회에서는 시민교육에서의 기능적 측면을 중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후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반대의견을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평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10)</sup>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의 사회과 목표는 최종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지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이 선정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의 내용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제6차)에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주제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5학년에서는 '자율적인 시민생활'에서 개인의 결정하는 일, 여러 사람이 만드는 법, 시민들의 주장과 책임(권리와 의무)을 다루고 있다. 6학년에서는 '민주국가로의 발전'에서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를 다루면서 국민의 주인인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민주정치와 시민의 참여'에서 민주정치의 주체, 정부의 구조와 기능, 민주정치와 복지 향상을, '현대 경제와 시민 생활'에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 생활에 대한 이해와 경제 윤리를, '현대 사회 생활과 법질서'에서 민주주의 확립과 법이라는 주제 아래 인권사상의 발달, 기본권 보장과 법, 권리의 침해와 구제를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공통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에서 시민사회의 형성, 현

9) 해리 케이,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전득주 외 공편,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서울:학문사, 1994), p.38.

10) 광병선 외, 앞의 책, pp.251-252.

대 시민사회의 성격과 과제, 사회의 변동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법 생활의 문제와 해결'에서 법과 시민생활을, '정치 생활의 문제와 해결'에서 정치 생활의 이해(권력과 자유의 조화, 민주정치의 원리와 과정),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민주시민의 사회 참여'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 Ⅲ. 학교 환경의 개선

#### 1. 민주적인 학교 환경

우리는 결코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육한다. 그러므로 교육을 우연적 환경에 맡겨 버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목적에 맞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꾸미는 것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sup>11)</sup> 이 말은 민주시민교육에서 학교 환경을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지난 1세기 동안의 민주시민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시각은 첫째로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시민정신은 학교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교육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민주시민적 가치는 주로 실천 과정에서 학습된다는 점이다.<sup>12)</sup> 따라서 학교 환경이 민주적이 되어야 시민성을 교육할 수 있으며, 거기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환경은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가 민주화되는 것이며, 학교의 조직과 운영에서 민주적인 원리가 우선시 된다. 민주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구되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사운영위원회, 학년협의회, 직원회의, 그리고 전교 학생 대의원회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역할은 학교 운영의 세부 사항에 관한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장에게 필요한 것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하고, 입

11) J. 듀이, 『民主主義와 教育』, 李洪雨 譯 (서울:教育科學社, 1994), p.34.

12) 전득주 외, 앞의 책, p.39.

장이나 견해 차이가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교육 본질적인 목표 속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이다.<sup>13)</sup>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체로 학교 운영에 관련된 당면 문제, 구성원들의 이견 조정, 학교 운영의 큰 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며 반영하기 위한 기구이다.<sup>14)</sup>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학교의 교육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교직원회의가 활성화되어서 중요한 결정은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학교장과 교사들 사이에 상명하복이 아니라 합의상 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 사이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며,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교사는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해야 한다. 그리고 교실은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열린 교실이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학급 운영을 하며, 가능한 한 수업도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한다.

## 2. 교사와 교실 분위기

민주시민교육은 전 교과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특히 사회과 교사와 도덕과와 윤리과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의 교실 분위기는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정치 문화, 정치 사회적인 풍토 및 교사 교육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교육 현실은 권위주의적인 교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 같다. 그 결과 학급을 운영하는 데나 수업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명령이나 지시 또는 주입식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교실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학생들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조용한 학습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했다. 이것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수업의 영향이 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실 분위기는 자유스럽게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환경과는 거

13) 교육부,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새학교문화창조』, 1998.12, p. 3.

14) 위의 책.

리가 멀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초·중등학교에서 열린 교실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열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탐구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탐구수업이 강조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면 민주적인 교사와 교실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사는 민주시민의 모델로서 기여해야 한다. “교사는 겸손, 관심, 학습, 지도성, 책임, 공정한 놀이, 그리고 행복의 기치들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관찰과 모방은 태도와 가치가 그것들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학습되는 중요한 수단들이다.”<sup>15)</sup> 또한 “지식이 있고 창조적이며 열성적인 교실 교사들은 학생들을 활동적인 민주시민이 되도록 가르치는데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sup>16)</sup>

따라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은 민주시민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과 교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제대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이 있고 창의적인 교사는 시민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이해를 시키는데 보조 수단으로서 민주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민주적인 교사는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 간에도 상호 존중하는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르쳐줄 수 있다. 또한 학급 운영, 교실 분위기 조성, 수업 방법에서도 민주적으로 하거나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데 적합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실의 환경과 분위기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치와 태도는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비형식적인 교육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이다. 교실환경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분위기라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교사는 민주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며, 민주적으로 학급 운영을 해야 한다. 민주적인 학급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인은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충분히 허용해야 되며 학급 생활의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 한편,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평등과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며, 학급 구성원

15) Rosalind Charlesworth and Nancy L. Miller, “Social Studies and Basic Skills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The Social Studies*, Jan/Feb., 1985, p.36.

16) Bob Bridges, “Helping Teachers Educate for Democracy: Teacher Programs and Institutes”, *The Social Studies*, Sep/Oct., pp.202-206.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고려에 의해 학급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민주시민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 학습 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교실은 민주적이고 열린 교실이 될 것이며, 수업 방법도 주입식 방법보다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탐구 수업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 IV.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 1.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훈련

선진 민주국가의 경우, 학교 교육에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참여와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의 학교에서는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위원회 활동, 학교 운영위원회 참석, 사친회 참석 등이 그것이다. 교내에서의 학생들의 봉사활동(예컨대, 교실, 도서관, 야외활동 등에서의 봉사활동)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의 특징은 사회 및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7)</sup>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혹은 그 외에서 개인과 집단의 욕구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의 이상과 실천에 대한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생들은 이상과 실천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확대시킨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 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점 사회적 필요를 인식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으며 공공선과 개인의 존엄 둘 다를 인정하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에 의해서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정치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sup>18)</sup>

17) 광병선 외, 앞의 책, p.249.

18) 전숙자, 앞의 책, p.52. 재인용.

해방 후 최근까지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에서는 지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가르쳐왔지만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데는 소홀리 해온 감이 있다. 초등학교 때는 담임 교사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동들의 가치와 태도에 주는 영향이 큰 것이다.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교실 분위기와 교사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모방을 통하여 권위주의적인 가치와 태도를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입시 위주의 지식 교육 때문에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는 더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학교 행정가들도 민주 시민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진학률에 더 관심을 두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교육은 연중에 조장해온 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주의를 실천해 볼 수 있는 학급에서의 자치활동도 교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학급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특히 10월 유신 이후에는 반장과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담임 교사가 반장을 임명하고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20여 년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보거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제약을 받았다.<sup>19)</sup>

## 2. 학교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도 방법

민주주의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다. 직접 민주적인 생활 체험을 통해서만이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가 내면화될 수 있고 그것이 행동이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학교생활을 통해서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의 교과활동은 물론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도 민주적인 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1) 인간 존중과 자아실현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은 인간 존중이며, 민주주의의 이상은 개개인의 자아실현이다. 민주시민교육도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과 이상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말로는 안되고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할 때만이 학생들도 그 교사를 존경하며 인간

19) 金恒元, "韓國에서의 民主市民教育 沮害要因과 그 克服方案", 『동아시아研究論叢』 제5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4, p.95.

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배우게 된다.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 조건은 공감적 이해, 존중, 진실성이다.<sup>20)</sup> 공감적 이해는 교사가 자기 자신을 학생의 입장에서 놓음으로서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다. 존중은 판단, 비난, 비평, 조소, 혹은 경멸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학생을 가치로운 한 인간으로 수락하고 깊이 존중하는 것이다. 끝으로 진실성은 학생을 대하는 관계에서 교사가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정확하게 깨닫고, 거침없이 그리고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학생들의 잠재 가능성을 찾아내어 반드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자주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인간 존중과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그것은 하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들은 5학년 때까지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학습 지진이나 저능아, 무의미한 인간, 운명에 맡겨진 아이로 스스로를 믿고 있었다. 우리는 하디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능력이 있고, 중요한 인간이며, 만일 우리 자신이 노력한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게 되었던 것이다.<sup>21)</sup>

## 2) 교과 활동

민주시민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교과는 사회과와 도덕과 및 윤리과이다. 특히 사회과의 목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것이다. 교과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 기능, 가치·태도와 사회적 참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지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사가 가르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며 재조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능 목표는 기초기능, 탐구 기능, 민주사회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주사회적 기능은 민주시민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기능

20) C. H. 패터슨, 『인간주의 교육』, 장상호 역 (서울:박영사, 1981), pp.108-113.

21) 잭 캔필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2』, 류시화 역 (서울:이레, 1997), pp.73-78.

을 말하는 것이다. 가치·태도 목표는 바람직한 가치·태도를 심어주거나 내면화시키는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합리적인 가치 판단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조해야될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협동학습이 적합할 것이다. 협동학습은 공동학습이라고도 하며, 5-6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적으로 하는 수업이다.

협동학습은 지식들이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있는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협동학습 구조는 기능적 목표를 획득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업환경을 제공한다. 협동학습 과정은 구조적으로 지적인 기능, 정보처리기능, 인간관계 형성 기능,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학습은 가치 탐구를 위한 적절한 수업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라는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사고, 의사결정,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훈련하고 실제로 행동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과 경험은 협동학습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sup>22)</sup>

교과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는 도와주는 탐구식 수업이 적합하다. 탐구수업은 개방된 교수·학습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주장이나 의견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드리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탐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명식 수업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해를 시키는 데나 전통적인 가치·태도를 내면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키우고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며, 합리적인 가치·태도를 명료화하거나 내면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민주적인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탐구식 방법에서 대표적인 기법이 토론법이다. 토론수업은 주로 소집단 토론수업을 하면서 한 학기에 2-3차례 주제 중심의 토론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집단 토론수업에서는 교사의 지도하에 5-12명의 학생들이 누구나 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민주주의 훈련을 하는데 적합하다. 주제 중심의 토론수업은 통합 교과에서 특히 중학교 사회과 통합 단원과 고등학교 「공통사회」에서 하

22) 정문성, "사회과에서의 협동학습 전략", 『社會와 教育』 21집, 韓國社會科教育學會, 1995, pp.268-269.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토론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토론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나 결정을 하는 방법이나 과정을 익힘으로써 고급사고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기능을 키워줄 수 있고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체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민주주의와 관련된 체험 사례 발표, 분단별 조사 발표, 시군 의회와 도의회 견학 등 교과와 학생 수준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의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죽은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생산·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교과 외 활동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데는 공식적인 교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학생 자치 활동, 학급회, 동아리 활동, 학교 행사 활동과 봉사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율과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생회 임원을 선출하고 학생회를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여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익히게 한다. 그리고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학급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과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민주적인 토론과 집단사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학생 자치 활동과 학급회는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를 직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장이 된다. 동아리 활동은 자유로운 집단 활동을 통해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학교 행사활동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과 행사로서 더 큰 공동체를 위한 봉사적 자세와 참여적 태도를 길러준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의 교사가 담임교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훈련을 시키기가 비교적 쉽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훈련을 철저히 하고 학급 일은 학급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급회의의 주제 선정, 회의 진행, 토의, 그 후에 실천까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장해야 한다. 이 이외에 학생 자치 활동, 특별 활동, 현장 학습, 봉사활동, 극기 수련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 가치와 태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는 모든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학생들 상호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데는 한계와 제약이 따른다. 담임교사일 때는 학생들의 문제나 학급 일을 학급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결정 방식을 터득하게 되고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의견의 존중, 자기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도 옳을 수 있다는 관용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특별 활동, 학교 행사 활동, 봉사 활동, 극기 수련 활동 등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며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 V. 맺는 말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은 가르쳤지만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주적인 학교 환경, 민주적인 교사, 민주적인 교실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민주시민교육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논의하였다.

학교 환경은 민주적인 학교 환경이 되어야 하며, 교사는 민주적인 교사가 되어야 민주시민의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고, 민주적인 교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실 분위기는 민주적이고 열린 교실이 되어야 거기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생활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생활 훈련은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들이 학급 운영, 학급회의, 교과 지도, 생활 지도, 특별 활동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생활 체험을 통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인간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 활동과 과외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생활 체험을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교사, 민주적이고 열린 교실 분위기, 민주적인 지도 방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속적인 교육과 생활 훈련을 통해서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병선 외,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4.
- 교육부,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와 교육비전 2002:새학교문화창조』, 1998.
- 金泰泳, “사회 개혁과 시민 교육”, 『社會와 教育』 제23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6.
- 金恒元, “韓國에서의 民主市民教育 沮害要因과 그 克服方案”, 『東아시아研究論叢』 제5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4.
-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평민사, 1992.
- 전득주·김수근·외르크 볼프 공편,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學文社, 1994.
- 전숙자, “생활개혁과 시민교육”, 『社會와 教育』 제23집,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1996.
- 듀이, J. 『民主主義와 教育』, 李烘雨 譯, 서울:教育科學社, 1994.
- 켄필드, 잭.,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2』, 류시화 역, 서울:이레, 1997.
- 웨이, 해리,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전득주외 공편,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학문사, 1994.
- 패터슨, C. H., 『인간주의 교육』, 장상호 역, 서울:박영사, 1981.
- Bridges, Bob. “Helping Teachers Educate for Democracy:Teacher Program sand Institutes”, *The Social Studies*, Sep./Oct., 1993., pp.202-206.
- Charlesworth, Rosalind and Miller, Nancy L., “Social Studies and Basic Skills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The Social Studies*, Jan./ Feb., 1985., pp.34-37.
- Smith, Allen, “Channeling in on Good Citizenship”, *The Social Studies*, Jan/

Feb., 1985, pp.28-32.

Wills, Benjamin C., et. al., *Educating for American Citizenship*,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A Depart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1954.

Abstract

Teaching Ways of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the School Life

Hang-Won Kim

This study aims at offering the device of the improvement of school environments to teach democracy from the school life, and examining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of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the school lives.

In chapter II, I describe the concepts, purposes and content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chapter III, I discuss the democratic school climate, teachers and classroom atmosphere. In chapter IV, I study the life disciplines and teaching ways for democratic citizen. In presenting teaching ways, I deal with human respect and self-realization, formal curriculum, and nonclassroom activities.

I examine the result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democratic school climates, teachers and classroom atmospheres.

Democratic teachers can serve as model democratic citizens and educate students through democratic methods. They can teach the students democracy through the life disciplines.

We can attain the goals of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continuous teaching and life disciplines, provided they are in harmony with a democratic school climate, teachers, open classroom's atmospheres,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